



## 水道人の使命

金儀遠

〈建設部都市局長〉

여전히 어느 여성雑誌에서 “이제 물을 安心하고 마실 수 있읍니다”라는 淨水器 広告文을 본 일이 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水道를 施設하였고 깨끗한 물의 代價로 料金을 내고 있으나 淨水器 宣伝廣告에 그러한 글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은 水道가 그 만큼 不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光復 30余年間 우리나라는 모든 面에서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上水道 또한 水道人們의 不斷한 努力으로 많은 發展을 하여 왔다. 그러나 產業의 急激한 發達과 都市化 過程의 促進으로 上水道의 需要는 急增하였고, 또한 都市周辺의 水質이 急速히 汚染되어 가고 있으므로 水道도 이에 따라 급속히 發展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需要에 供給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今年은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第1次年度이다. 計劃期間中の目標인 国民福祉向上을 為하여 上水道 施設拡張에 政府는 더욱 拍車를 加할 것이다. 그러나 施設拡張만으로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技術과 人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제 水道人은 国民의 保健衛生에 直結되는 業務에 從事함을 珍持로 삼고 技術과 人力開発에 더욱 努力を 加하고 国民의 保健衛生向上에 對한 使命感을 갖고 일 하여 不信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도리어 보건대 우리나라 水道業界는 資材生產에서 부터 施工技術에 이르기 까지 飛躍的인 發展을 해왔다. 또한 単位工事規模에 있어서도 世界的 水準의 大規模工事까지 經驗했다. 이와 같은 經驗을 土台로 우리 水道人們은 繼続的인 技術의 積蓄으로 祖國 近代化의役軍이 되어야 할 것이다.

〈卷頭言〉